

“생계 임계점 도달... ‘DMO’ 꾸려 발전 도모해야”

(지역관광협의회)

우리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혹독한 시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위드코로나로 잠시 온기가 돌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취임한 양무승 서울관광협회(STA) 회장은 40년 넘게 관광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베테랑 기업인이다. 서울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80%를 차지하는 핵심지역이다. 양무승 회장과 코로나 위기 속 관광산업의 현실과 미래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끝 안 보이는 코로나에 어려운 시기 정부 지원 소극적...줄줄이 문 닫아 각 자치구 참여 지역관광협의회 필요 콘텐츠 개발·마케팅 힘 합쳐야할 때 타 지역에 모범적 테스트베드 돼야



-어려운 시기에 서울 관광업계의 대표를 맡았다. “각정이 태산이다. 정말 어려운 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서울시 민생대책 예산 8000억 원 중에 관광 관련부문이 165억 포함됐다. 서울 소재 5500개의 관광 관련 소기업에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가 관광업계를 위해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이런 결과여서 너무 고맙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관광업계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불만이 높다. “지금 다들 생계임계점에 도달했는데 여전히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다. 산업 특성이나 종사인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없다. 해외여행 현지가이드나 여행인솔자들은 현재 지원 사각지대다. 고용 형태가 정규직과 다르다 보니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내 통역안내사들도 인바운드 관광객을 담당하는 중요 인력인데 역시 같은 이유로 지원이 없다.”

-그럼 업계가 체감할 현실적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손실보상금을 제조업과 다르게 봐야 한다. 여행사는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다. 전체 매출에서 이익을 따지는 제조업과 달리 기업에 순수하게 남는 수익 자체가 매출이다. 산정 자체는 어렵지 않다. 국제청신고 매출을 수익으로 인정하면 된다. 당국의 시각과 의지의 문제다.”

-정부는 최근 해외관광객 2500만 명 유치 계획을 천명했는데... “2500만 명을 어떻게 수용할지 실질적인 고민이 없다. 여행객을 실어 나를 항공사부터 숙박을 책임질 호텔, 여행사, 통역안내사 등 관련산업 생태계가 대거 무너졌다. 이를 해결할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한다.”

-관광업의 중요 축인 호텔 상황이 요즘 심상치 않다. “특급호텔 일부가 호캉스 등으로 선전하니가 정부에선 ‘아직 버틸 만한 것 같다’고 보는 것 같다. 실제로는 대부분 힘들다. 특히 해외관광객이 선호하던 비즈니스급 호텔들이 심각하다. 몇 년 전까지 호텔이 많이 부족해 실속형 도심 비즈니스급 호텔이 많이 생겼는데 직격탄



1978년 입문해 지금까지 여행업계 현업에서 뛰고 있는 대표적인 1세대 관광인 양무승 서울관광협회 회장. 양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획일적이고 소극적이라면서 “2500만 명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항공부터 호텔, 여행사까지 일선 수용대세를 확보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을 맞았다. 호텔은 시설과 인력이 핵심이다. 손님이 들지 않으면 시설 유지가 어렵고, 서비스 인력이 빠져나간다. 객실 린넨 세탁이나 식자재 공급 같은 협력업체도 일감이 없어 문을 닫고 있다. 이게 생태계 붕괴다.”

-어려움을 겪는 호텔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우선 비용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호텔들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여전히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 이용객이 확 줄어 지역교통유발 요인이 없다면 부담금도 없애거나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재산세 경감 등 세제지원도 필요한데 이런 또 국제가 아닌 지방세다. 지자체가 수익이 줄기 때문에 나서질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지역교부금을 늘리는 식으로 지원해 지자체가 호텔 재산세를 깎아주도록 유도해야 한다.”

-코로나로 관광유관산업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사인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슬롯(항공기가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권리)이나 노선을 줄이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 여러 고민 끝에 그런 방향으로 잡았겠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기대했던 인수효과가 생길지 걱정이다. 이만한 글로벌 항공사 하나 키우는 데는 50년이 걸린다. 치열한 글로벌 항공경쟁에서 국적항공사가 버티도록 도와줘야 한다.”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너무 커져 국내 LCC(저비용항공사)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문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노선과 슬롯을 줄이면 그게 우리 LCC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항공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 LCC의 기재나 인력 여건상 FSC(대형항공사)인 두 기업의 슬롯과 노선을 인수하긴 쉽

양무승 서울관광협회장은...

-1954년생. 단국대 행정학 학사. 1978년 럭키항공(여행사) 입사. 1987년 올림피아항공(여행사) 설립. 1999년~(현)투어2000 대표이사. 2013년~2018년 한국여행업협회(KATA) 제8·9대 회장. 2016년~(현)한일경제협회 이사. 2018년~(현)서울시 관광인명예시장. 2021년~(현)국회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

-제42회 관광의 날 은탑산업훈장, 프랑스 관광공훈장, 일본 외무대신 표창

지 않다. 어렵게 개척한 노선과 해외공항 슬롯을 남에게 다 주는 셈이다. 한번 내준 노선과 슬롯은 되찾기 힘들다. 항공주권, 운송주권의 문제다.”

-위드코로나 또는 포스트코로나에서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구상은. “서울이 우리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이니 문제부가 밝힌 2500만 명 유치에서 최소 2000만 명은 감당해야 한다. 서울관광이 함께 발전하고 자치구로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협의회(DMO)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DMO는 어떤 구성과 역할을 하는가. “서울의 DMO는 자치구의 관광담당자, 관광업체, 관련 산업체들이 다 들어와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객 수용접점이 많은 편의점, 화장품매장 등이 같이해야 한다. 각 자치구가 참여하는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상품구성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필요하다. 일본은 도쿄 북쪽 8개 현이 연합해 공동마케팅을 하고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성공했다. 서울의 DMO가 다른 지역이 따라 할 좋은 테스트 베드가 돼야 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설 연휴 방문객 이벤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설 연휴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알펜시아 호텔과 콘도 프론트에서 리조트 이용 고객에게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루마블 맵과 나무 팽이 등을 선물한다.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즐긴 추억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배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리조트의 호텔 식당에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옥시라운지에서는 오후 5시30분부터 9시까지 라이브 공연과 함께 생딸기 주스, 딸기라떼, 딸기마티니, 딸기슈페너로 구성된 겨울 특선 음료 ‘스트로베리 홀릭’을 운영한다. 플레이버스 레스토랑은 참나무 장작으로 훈연한 바비큐, 참치 카빙과 스시 바, 생맥주와 와인 2종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설 특선 뷔페를 진행한다.



롯데면세점, 伊 주얼리 ‘포멜라토’ 국내 첫 입점

롯데면세점은 이탈리아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포멜라토’(Pomellato·사진)의 단독 부티크를 국내 최초로 서울 명동 본점에 오픈했다. 포멜라토는 1967년 이탈리아의 금세공 장인 피노 라볼리니가 설립한 업체로 다채로운 색감이 돋보이는 컬러 스톤이 특징이다. 밀라노 공방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해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주얼리, 시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5% 늘어나는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명동 본점 11층에 단독 부티크 매장을 마련했다.

하이원리조트, 업계 첫 전속 인플루언서 선발

하이원리조트는 리조트 업계 최초로 전속 인플루언서를 선발한다. 하이원은 전속 인플루언서를 통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채널에서 리조트 홍보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유튜버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협업콘텐츠 아이디어, 활동포부 등을 담은 영상과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를 거친 본선 진출자들의 콘텐츠를 하이원 유튜브에 업로드해 15일간 조회수와 좋아요 투표를 통해 최종 3명을 선발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21일 (금) 음력: 12월 1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리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고 관찰다. 변화로 인한 이득이 있는 날이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육체보다는 정신적 기운이 강해지는 날이다.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큰 뜻을 펼치고 싶은데 날이 저문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오늘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은 다행히 돼지띠와 함께하라.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오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자숙, 겸양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남쪽방향에서 귀인을 만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자신감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용미 생을 만나면 어려움이 풀린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라. 돼지띠가 귀인이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자신을 스스로 옥쇄는 형상을 보인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대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대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힘찬 출발을 하는 기운이다.						

오늘의 날씨				21일(금)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7 4		-6 2		-13 4		
강릉	0/20	대전	0/0	전주	0/10		
	-5 6		-9 7		-7 6		
광주	0/20	대구	0/0	부산	0/0		
	-5 8		-7 8		0 9		
창원	0/0	제주	2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4 7		2 10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5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